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접종을 받고 미래를 만드세요' 백신 인센티브가 예방 접종을 받는 만12세에서 17세에게 완전한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 장학금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

예방 접종을 받는 만12~17세의 어린이는 5월 27일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의 전체 장학금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

5주간 주당 10명의 수상자 추첨, 수업료, 방 및 식사를 포함한 전체 장학금

추첨 시작 알림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등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만 12~17세 아이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접종을 받고 미래를 만드세요(Get a Shot to Make Your Future)'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에 참가할 수 있으며 5월 27일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에 대한 전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수업료 및 방과 식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립 대학 또는 칼리지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뉴욕주가 무작위 추첨을 관리하고 5주간 주당 10명, 총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연방 코로나19 구호 및 지원 기금은 이 예방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예방 접종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확진율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주에서 가장 낮은 접종율을 보이는 젊은 뉴욕 주민이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인구에 더 잘 도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 12~17세 인구 모두에게 예방 접종을 받는 대가로 뉴욕에 있는 공립 대학교나 칼리지의 장학금, 방, 식사 등을 제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을 일찍 받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무료이며 예약 없이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의 기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을 받으십시오."

수상자에게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된 최대 전체 4년간의 학부생 또는 승인된 5년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시립 대학교의 주내 교육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비등록금 비용:** 최대 뉴욕 주립 대학교의 평균 비용까지이며, 숙소와 식비 및 교재, 물품, 교통비를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거주지:**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은 통학하는 학생보다 더 높은 숙소와 식비 비용을 받습니다. 캠퍼스 내 학생 주택을 이용할 수 없다면,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과 동일한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는 수상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명예총장 **Jim Maltr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학생들에 대한 난관을 계속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캠퍼스를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더욱 정상적인 학업 및 캠퍼스 경험의 열쇠인 예방 접종과 함께, 이 장학금 인센티브는 올 가을 학기 전체 캠퍼스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완전한 대학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명예총장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뉴욕 주민들을 접종하여 마침내 이 무서운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에 감사드리며, 예방 접종을 받은 학생들이 도움을 줄 건강하고 안전한 2021년 가을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 대표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서비스공사는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백신 인센티브의 일원이 되어 뉴욕 청소년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뉴욕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뉴욕 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았지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뉴욕 시립 대학교 또는 뉴욕 주립 대학교, 2 또는 4년제 칼리지에 무료 자금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과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을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5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만 12~15세의 화이자(Pfizer)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확장 사용 승인을 즉시 시행하라는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Clinical Advisory Task Force\)](#)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은 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는 백신을 접종한 시기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